

안녕하세요. 심리학을 맡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14번의 규준과 표준화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이 문제는 중복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이것은 전, 후에 알맞게 들어가야 하는 용어는 규준-표준화입니다.

“심리검사 결과의 개인간 비교를 위해서는 이것(A:규준)이 중요한데, 이것(B:표준화)은 검사의 실시와 채점을 일관성 있게 통일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세화하는 것”

그럼에도 답을 규준이라도 언급한 까닭은

지난번 공지에도 기재하였듯이 질문 중 “이것은”이라는 표현때문이었습니다.

이것(A)가 없었다면 표준화가 맞지만 지문에서 이것(A)이 중요하다는 표현은 규준이기에 둘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한다면 규준이 가깝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표준화를 선택하셨을 분들이 마음조리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공지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화가 답이 아니라고 단정짓기에는 문제자체가 모호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표준화 과정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에 이것(A)에 표준화라는 용어를 넣었을 경우에도 옳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A에 대한 용어가 보기에 있기에 이 문제는 중복답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리검사 개발과 관련된 책들은 사실 표준화에 대한 챕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검사 과정에서 규준에 대해서 모두 챕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하십시오.

오히려 표준화 챕터를 구성하지 않은 교재들은 규준 챕터에서 규준의 의미 작성요령, 해석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새로운 심리검사법** / 강봉규

p63. 규준집단: 한 개인의 검사 점수를 해석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집단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이 집단을 규준집단이라고 부른다.

p83. 채점 및 해석의 표준화:

채점 및 해석도 위의 절차의 표준화에 속하는 것이 되겠지만 표준화 검사에서는 검사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규준이 마련하고 있음이 그 특징의 하나이다.

(물론 규준자체가 채점 및 해석과정의 절차의 명세화라고 명시하고 있지않지만 이것은 규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규준이 존재하기에 채점과 해석의 표준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절차의 명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석을 하기 위한 방법이 규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준안에 백분율이나 표준점수 등의 다양한 규준기준 점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해석을 위한 작업이 규준작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실시까지 규준에 포괄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p95 규준의 작성: 규준이란 검사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의미있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검사에서 나온 원점수로는 의미를 알수가 없기에 점수체제로 바꿔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규준 등이 있음.

책: **심리측정의 원리** / 임인재 등

p238

검사에서 얻은 원점수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검사점수를 다른 집단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한 개인의 점수를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검사결과를 규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준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규준의 의미와 작성요령, 그리고 해석상의 주의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p240.

규준:

- 한 개인의 점수를 의미있게 해석하고자 할 경우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검사결과를 규준이라고 한다.
- 규준은 개인의 점수를 비교하는데 기초된다.
-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집단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이 집단을 규준집단이라고 한다. 주어진 검사에 대해 나타낸 표를 규준표 또는 규준이라고 한다.

책: **인지학습 심리검사의 이해** / 박창호 등

p20. 규준은 적절한 표본으로부터 얻은 많은 수의 자료를 이요하여 검사점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표이다. 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실시되고, 채점되어야 할 것이다.

책: **심리평가의 최신흐름** / 이우경 등

표준화과정: 심리검사를 평가할 때 중요한 문제는 규준이 존재하느냐 여부이다.

책: **심리검사** / 윤명희 등

p28 - 6) 표준화 검사와 비표준화 검사

: 표준화 검사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피검사자를 표집하여 동일한 지시와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후 객관적 채점방법에 의하여 규준이 만들어진 검사를 의미한다.

p29 - 7) 규준지향검사와 준거지향검사

: 검사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결정되는데, 이는 규준지향검사와 준거지향검사로 구분된다. 규준지향검사는 피검사자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채점기준을 통해 검사총점을 산출하고 전환 또는 변환시켜 해석하게 된다.

책: **심리검사** / 탁진국

p91

9. 검사의 표준화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검사를 실시하게 될 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점수가 전체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점수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표시한 것이다. 표준표에 나와있는 점수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책: **심리검사법** / 김명소 등

p92. 6.2 표준참조점수:

표준참조점수는 표준화된 적성검사나 성취검사에서 수행의 개인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된다. 표준참조점수의 산출과정은 여러단계로 이루어지며 그 유형 또한 다양하다.

6.2.1 표준참조점수의 산출과정

표준화 과정에서 채점체계를 개발한 뒤, 이 채점체계를 이후의 모든 검사 실시 시 표준-참조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용한다. 이때의 표준집단을 표준화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받은 사람들이다.